| 산업통상자원부 | **보도자료** | http://www.motie.go.kr |
|---|---|---|

**2018년 6월 6일(수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5일(화)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| 배포일시 | 2018. 6. 4.(월) | 담당부서 | 투자유치과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김재준 과장 (044-203-4080) | 담 당 자 | 류종민 사무관(044-203-4089) |

# 산업부 장관, 중국의 우리나라 투자 회복 국면전환 유지를 위해 2년 만에 장관급 투자유치활동(라운드테이블) 재개

**- 반도체, 바이오, 미래형자동차, 신재생에너지, 소비재 등 총 12개 기업 참석 -**

**-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약 5억 달러 유치성과 달성 -**

## 1. 행사 개요

□ **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'18. 6. 5.(화), 북경에서 **한국 투자에 관심이 있는 중국 투자가**를 대상으로 **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라운드테이블***(R/T)을 개최했다.

* 13:45~14:45, 동방 하얏트 호텔 (북경) Drawing Room

○ 이번 투자유치 활동은 반도체(JCET), 바이오·신재생에너지(EVERCARE, Fujian Ruico 등), 미래형자동차·로봇(베이징자동차, SIASUNROBOT 등), 콘텐츠·소비재(스피어헤드, IIE STAR 등)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**신산업**은 물론, 중국과 **유망 사업이 예상되는 분야**에서 **총 12개 기업**이 참석했다.

○ 이번 행사는 '17년 급감 이후 '18년 들어 증가하고 있는 **중국의 우리나라 투자의 회복 국면전환**을 올해 **말까지 유지**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,

* '17년 신고 8.1억불(전년비 60.5%↓) / '18.1Q 신고 10.5억불(전년비 541.5% ↑)

- **중국 투자가 대상 장관급 투자유치 활동**은 '16년 이후 **2년 만에 재개**되는 것이다.

* 최근 장관주재 중국투자가 대상 유치활동: '16.4 차이나위크 계기 라운드테이블

□ 이번 투자유치 활동은 작년 말 개최한 **한·중 정상회담**에서 합의한 **"한·중 경제교류 복원 및 활성화"**에 이바지하고, 올해 열린 한·중·일 정상회의와 한·중 산업장관회의 등으로 형성하고 있는 **한·중간 협력의 국면전환**을 **적극 활용**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.

○ 특히, 중국 투자가의 구체적인 **한국 투자계획 발굴** 등을 통해 양국의 **경제와 투자협력을 현실화**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
## 2. 주요 내용

□ 백장관은 중국 투자가와의 만남에서 ① 한국투자에 **구체적인 투자 관심**을 가지고 있는 **중국기업의 투자의향이 현실화**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

○ ② **한국기업과 합작법인 설립, 기술제휴 등을 바라는 중국기업**에게 기술력 있는 한국기업과 협력이 성사되도록 **기업간 연결을 지원**하고,

○ ③ **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**을 대상으로는 **애로사항을 집중 청취**하고, 문제해결 의지를 공유해 **증액투자를 유도했다.**

□ 특히, 백장관은 인사말씀에서, 남북 정상회담('18.4)과 북미회담 등을 계기로 **"동북아**에 전에 없는 **긴장완화**와 **협력 분위기가 조성"**되고 있는 바로 지금이,

○ 한중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**"미래 지향적 관계발전을 뒷받침할 투자협력을 확대**할 수 있는 **골든타임"**이라는 점을 강조하고,

○ 정보기술(IT)·바이오·신재생에너지·로봇·미래형자동차 등 **"신산업 분야**에서 **국제표준 주도, 공동연구·생산, 인적교류** 등 국제적 주도권 확보를 위한 **전방위적 협력의 필요성"**을 언급함과 동시에

- 중국내 **"한류 재점화 분위기**를 활용한 **소비재, 문화콘텐츠** 투자, 이를 통해 동남아·중동 등 **한류의 새로운 영향권**으로 **진출**"하는 사업 모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.

□ 산업부는 이번 중국 투자가와의 만남(라운드테이블)을 통해 **중국 투자자로**부터 **약 5억 달러 규모의 투자신고를 완료**했다.

○ 이번에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들은 자동차, 소비재, 식료품, 바이오, 로봇, 신재생에너지 등 **전통 제조업에서 신산업까지 그 투자범위가 광범위**했으며, 단독투자, 한국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, 지분투자 등 **투자방법도 다양**했다.

○ 또한, 한국에 생산공장을 건설해 한국 또는 중국시장 진출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, **한국의 자유무역협정(FTA) 거점이라는 이점을 활용**해 **미국, 유럽연합(EU),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**하려는 **"제3국 시장 진출형 투자"**도 주목된다.

○ 산업부는 이번 유치 성과를 통해 지난 1분기에 조성된 **중국발 우리나라의 투자 증가세**를 **'18년 하반기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기반**을 마련했다.

## 3. 향후 계획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투자의향을 피력한 중국 투자가를 **밀착 관리**해, **한국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되도록 적극 노력**할 계획이다.

○ 이를 통해, **"4년 연속 200억 달러 달성"**이라는 올해 목표를 **착실히 이행**해 나감으로써, **외국인 직접투자 200억 달러 시대**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.

□ 또한, **한국내 중국계 외투기업과의 의사소통을 강화**하여 코리아 프리미엄 향유를 위해 **한국에 투자하여 중국시장에 재진출**하려는 **전통적인 투자모델** 뿐만 아니라,

○ **양국의 강점을 결합**해 **제3국 시장에 진출**하는 투자 등 **다각적인 중국과의 투자협력 방안**을 **발굴**해 나갈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류종민 사무관(☎ 044-203-408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